

진 술 서

주소:

생년월일:

성명 : **차 惠 璟**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인천 소년 교도소에 공문서 변조의 죄명으로 인천 교도소에 수감
23일 제1차에 수감되어 11월 4일 집행유예로 나온 사람으로
권원숙 양과 여사 4방에 같이 수감되어 권양의 성교물 사건으로
같이 단식을 하였으므로 당시의 교도소내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 하고자 함이다.

아 래

1. 권원숙 양은 6월 16일 제1차 8시경 인천 교도소를 송치되어 여사
4방 (본인이 기거한 방) 에 수감되어 같이 생활하였다. 6월 16일
제1차 들어와 권양은 몹시 피곤해 했으나 그래도 자신과
같은 공안사범을 만나니 마음은 편안하고 좀 살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동거인들) "몸은 좀 괜찮느냐 바깥 상황은 좀 어떠냐
어떻게 들어 왔느냐" 고 묻자 "개헌 특위들의 문제로 바쁘다고 한듯
하고 상황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 부친이 있다가 자취방을 집주인이
신고하여 방이 헐려서 자신이 많은 주민등록증 (취업시 필요한 것) 이
나타 공문서 변조로 구속되었다" 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받을때는 괜찮았나" 하자 " 심하게 당했다" 고 이야기

하였다. 더이상 캐묻지 못하라고 그냥 있으려 나가" 웃을 뿐이고
 고문했다" 고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한참 앓다가 " 조사했던 형사가
 형사의 성기를 자신의 질에 갖다가 대고 유방을 쥐주르면서
~~하~~ 추조했다. 그리고 그때 손은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상태였고
 성고문을 하기 전에 붓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때렸다" 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너무 기막히고 놀라아 어떻게를 몰라하며
 " 인숙아 너무 고생이 많았구나. 편히 쉬어라" 고 하며 6월16일
 은 취침하고 더 이상의 이야기는 못했다.

2. 다음날 6월17일 이 여사 5방. 6방에 있는 5.3사태를 들어온 사람
 듣에게 인숙이는 자신이 고문 당한 사실을 이야기 했고 5방
 6방 사람들을 모두 기절할듯 놀라하며 흥분하였다.
 우리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분개해만 있는 상태였고 인숙이
 역시 개인적으로 행위하고 포털감을 느꼈다. ~~한~~ 치장에서
 자살까지 생각할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었다고 하며 너무 억울
 하다고 하였다. 기막힌 상태로 지내고 있을때 17일 인치 8일
 인치 확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으나. 인숙이는 " 강간리
 가 성립되는지 알아 봐야겠다. 성기가 삼입 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알아 보고 성립되면 고소하겠다"
 고 하며 우리로 " 그것이 좋겠다" 고 했고 5방. 6방
 이따위로 찬성하며 인숙이 랑랑 변론사 (정태봉 변론사
 를 알고있음)에게 제사 받을 당시의 정관 사실회 면하고
 (변론사 수갑이후 1주일 폭력에 은전 있음).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했더니 성립된다고 답변하였다고 했다

인숙이는 고소할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찬성했다.
아직은 당당한 인숙이 개인적인 불만이나 억울함만 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슬하에 강태운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며
우리나라 민주화를위한 모든 폭력적 노력을위한 싸움이라
인식하여 인숙이의 고소를 적극 지지, 지원하며 좀더 우리
힘을 보이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기한 간식할 것까지
결의 했다.

3. 간식을 금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조측은 일방적으로
인숙이의 접견을 금지 시켰다. 6월 21일(금)에 N.C.C 관계
사람이 접견 신청을 하여 접주증까지 받아온 상태에서
"인숙이가 부로닝이티의 접견은 거절한다" 는 통, 부로닝이
교조소장님께 연락하길 부로닝이티의 사람은 면리
시키지 말라" 는 부탁을 해서 그날은 접견인을
들려 보냈다. 이 사실로 6월 28일 (土) 교조측은 통을 돌려서
안왔고 우리가 "태 기껏만시키면 이간질시키냐, 우리가
금치산자냐 미성년자냐 에 부로닝의 이야기로 접견을 금지시키냐"
고 따져 자 "상복지시라서 한수없다" 라고 ~~한수~~
접견을 계속 금지 시켰다. 6월 28일 접견금지 ~~후~~ 에 항의
하며 점심부터 단식에 들어 가자 교조측은 원로일기 접견
을 시켜 주겠다고 임기응변으로 끼어들고 지금까지 접견금지가
되어왔다.

4. 이러한 상태가 밖으로 접견을 할데 알려 지고 인숙이의
생각들이 밖으로 폭로 되고 신문, 방송, 대책위원회 등이 밖에서

연속이러 성고문문제가 커지게 되었음을 알았고 남사돈 연속이러
 성고문 문제를 계기로한 고문 탄식투쟁에 들어갔고 ~~이~~ 여사로 인한
 이후 고문 탄식 투쟁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문구종 구속 및
 만연경란 타변이 될때까지 무기한 탄식 투쟁을 하겠다.
 탄식중 ~~1월~~ 1월 2일경 한명이 소러졌고 링걸을 맞고 ~~문~~
 회복된 상태로 되었다.

1986. 7. 8.

박혜경.

